

2016년 신년 메시지

첫 사랑의 회복

서울교회를 붙들고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수고와 인내,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친 것,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 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리하여 첫 사랑을 회복한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해 주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옵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하여 예전에 없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어, 오직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평강만이 넘치는 새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Happy New Year!!!

-박노철 목사

※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오늘 영어 예배와

에바다부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603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603 호
유년부	오전 9시	701 호	에바다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꿈나무영어성품스쿨	오후 4시	701 호	장 년 부(오후반)	오후 3시30분	702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903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새가족부	월일반	오전 10시20분	602 호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전일반	오후 12시40분		
청년 1부	오후 2시	101 호	세례교육부	1부	오전 10시20분	607 호	
청년 2부	오후 2시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새가족환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 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황 광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상담목사 양세라	전도사(전도담당)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원 천세종 심진희 정대은	협동목사 김철홍 원종현 김다니엘	
전도사(교육담당) 구본혜 장재원 이진광 고수은 Vung Zam Cing,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곱·주하나, 권요셉·조에스터, 김모세·이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박재찬, 박병연(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해,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이상식·김정옥(인도), 정상진·홍성일(말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사·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낙형·오정녀(캐나다), 김중일·백순미(터키노동자), 탕 쉐,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썬, 쟈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포, 수레시, 수바스, 이경렬, 알로롱, 비시루뵈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준(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용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중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박 노 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예수님을 만난 바울” ("Paul Encounters Jesus ")

■ 행 9:1-19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전 인류역사 가운데 예수님 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언급하지 않고는 복음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래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울이라 불렀던 사도 바울의 회심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 바울의 회심

사도행전에 사울이 직접 간증하는 회심 스토리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나오는데, 세 번의 간증을 요약해 보면, 일단 회심의 장소는 다메섹이 가까운 곳이었고, 그 시간이 정오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런 회심에 대한 간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주신 그 소명을 너무나 신실하게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분과의 만남으로 인해 회심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그 회심의 사건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진정한 인생의 근본부터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모습이 위험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기술합니다. 사실 사울은 원래부터 위험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위험과 살기가 등등해진 이유는 당시 그가 믿고 있었던 유대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유일사상을 갖고 있던 그가 나사렛 예수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들을 보며 살기등등하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심각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울이 더 많은 크리스천들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했던 자기 신앙의 프레임인 유대교 신앙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자기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인생의 가치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 바울의 눈에서 벗겨진 비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사울은 3일 동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 이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부터 보게 된 세상은 회심전의 세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신의 보았고,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고, 이제부터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사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고,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우리가 꼭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심으로, 여러분들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함께 변화되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오정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황 광 목사	노문환 장로
III	오후 2시	유문건 목사	서문석 장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시 46:1,11	인 도 자
찬 송 ... 70(79) / 401(457) ...	다 함 께
기 도	은가장 집사
성 경 신 4:41-4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도피성의 은혜 “	설 교 자
* 찬 송 386(439)	다 함 께
* 축 도	인 도 자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김종일 목사
기 도 I부: 이영숙 권사 II부: 백정순 권사	
성 경 창 22:1-1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기독교와 이슬람교” ...	설 교 자
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시 분당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해란·김양언
설 교	박노철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분당 2층
특별새벽기도회	관계로 개인기도회로 대체됩니다.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분당 2층
특별새벽기도회 관계로 개인기도회로 대체됩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차주연	임아름	윤주일	가브리엘	임아름
II 부	할렐루야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류충기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오늘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수요 I부	은 빛	박래경	김현정15	홍해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 2:7)		
수요 II부	시 은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교 회 소 식

☛ 모 임

1. 전도위원회 (넘선교회, 여전도회) 회장모임 / 3일(주) 오후2시30분 903호
2. 제1권사회 임역원회 / 4일(월) 오전11시 802호
3. 이미용봉사(동명노인복지관, 한울정신건강센터) / 5일(화) 오전8시50분 104호
4. 아브라함 선교회 임역원회 / 6일(수) 오후12시30분 802호
5. 리브가 전도회 임역원 모임 / 6일(수) 수요일부 예배 후 1층 로비
6. 스테반 임시총회 및 월례회(척사대회) / 9일(토) 오후2시 월례회(501호), 척사대회(701호)
7. 남선교회 연합 월례회 / 9일(토) 오후5시 101호
8. 의료선교부 신년모임 / 9일(토) 오후5시 102호
9. 전 도 / 3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대차삼성, 도곡레이크, 롯데캐슬, 진달래, 대치 I -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공)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6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8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마리아 전도회(607호)

오후 8시 70인전도대 수요일간팀, 스테반회(한티공원)

7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중점전도: 은파, 미도, 대치현대, 역삼러키, 개포주공(7단지), 래미안 대치 팰리스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603호(11시 202호)

9일(토) 오후 3시 70인전도대 토요노방팀, 발립 선교회(한티공원)

☛ 알 림

1.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2.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베들레헴 홀)
3.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시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현관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 Sarah Kim)

4. 신년감사예배 / 우리교회는 오늘 신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합니다. .
5. 공동의회 / 오늘 찬양예배 후에 2015년 결산 및 2016년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6. 제203회 북한구원기도회 / 1월4일(월) 오후7시 서울교회에서 열립니다. 성도분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 서울강남노회 신년하례회 / 1월5일(화) 오전7시 서울교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립니다.

뒷면으로 계속☞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박동수3	14-6	이삭	재팀/배경애	김도훈	14-7	빌립	자비팀	문예준	교육2국	중등부	은소희
최경희3	14-6	하나	재팀/배경애	한샘이	14-7	도르가	자비팀	김소윤	교육2국	중등부	오소현
김정태2	14-1	바울	김은숙	장영민1	교육2국	청년1부	본인	박민지3	교육1국	초등부	자비팀
김영아1	16-6	루디아	희락/백미숙	백종현	교육2국	청년1부	재팀/배경애	박서희	교육1국	유치부	남정아
원홍희	1-26	빌립	인내팀	문예담	교육2국	중등부	은소희	원승유	교육1국	유치부	인내팀
김소인	1-26	도르가	인내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면에서 계속

8.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10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9. 의료 상담 / 정철웅(외과) 주일 오전 10시3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902-5922

☛ 결 혼

1. 이현성 군(이동형 성도, 김말자 성도의 장남)과 유나연 양(2교구 유근중 집사, 배은희 권사의 장녀) / 9일(토) 오후1시 서울교회 웨민홀(101호)
2. 김평석 군(2교구 김재일 성도, 김주희 씨의 장남)과 이원경 양(이용림, 고춘옥 씨의 장녀) / 9일(토) 오후4시 소노펠라체 칸벤션(2222-7401) /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

☛ 장례

- 1.故 최봉의 성도(14교구 이돈수 성도의 모친, 박정금 집사의 시모) / 12월29일(화) 별세, 31일(목) 발인

🌳 시작하는 사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말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세밀한 계획과 필요한 자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 할 것은 그 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적인 이해와 결단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자기 희생을 각오 할 수만 있다면 일단 일은 시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남의 흉내나 내고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안일주의에 빠져 인생을 소일하기보다는 창조적 인물이 되어 무슨 일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임을 잊지 말자. 돈과 시간과 능력이 있다 해서 할 일, 못할 일 다 시작해 놓고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은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시작하되 옳은 것을 시작하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